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지구촌은 세계일화

“조세이탄광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관음종 유등제

5월 9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서
희생자 183위 추모유등 밝혀
조사 중 별세 빅터 씨 기려
유해 조사 촉구 성명 발표도


관음종 총본사 낙산묘각사 원통보전에 불 밝힌 유등(油燈)들. 가운데 원형으로 모인 등불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조선인 · 일본인 희생자 183위와 이들의 유해 조사를 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이다. 관음종은 5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다.

“작은 유등의 불빛은 빈부귀천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오늘 유등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한마당입니다.”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183명의 조선인·일본인 노동자와 이들의 유골을 찾기 위한 잠수 조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油燈)이 불을 밝혔다.

관음종(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5월 9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다.

기름 등불을 밝히는 ‘유등제’는 관음종만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로 올해에는 84년 전 조세이탄광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스러져간 183명의 희생자들과 또 그들의 유골을 찾기 위해 자비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故 빅터 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 했다.

기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이탄광 사고를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였다.

새기는회는 1991년부터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위령비 건립 후 새기는회는 2014년부터 단체 사업 목표를 추모에서 유해 발굴 및 본국 송환으로 전환했다. 일반 시민단체가 유해 발굴 조사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한국불교계가 이들과 함께했다.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매년 100만엔을 후원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유해발굴을 지원해 왔다. 새기는회의 노력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에는 잠수조사 중 본 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2월 조사에서도 유해 1구가 수습됐다. 하지만 조사 도중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날 낙산묘각사 원통보전에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조선인·일본인 희생자 183위와 빅터 씨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및 행사 참여 대중의 유등이 불을 밝혔다.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일화를 소개하고 등공양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파 스님은 “난타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등불이 가장 오래 탈 수 있던 것은 진심을 담아 불을 밝혀 공양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등공양의 전통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고 기름 등불에 불을 밝히는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종단 바로 관음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183위와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마음으로 밝힌 등불로 참여 대중 모두 복전을 일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외빈들은 인사말을 통해 유등제의 의미를 되짚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에서 유등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의 짙은 어둠을 가르고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발산하는 숭고한 이타행의 결정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유등의 심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불은 내 안의 이기심을 태우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비의 등불은 84년 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불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잠수사 빅터 씨의 인류애를 밝히는 빛”이라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이 등불의 온기가 작은 위로이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향한 길잡이가 되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이기병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한국유족회 부회장은 관음종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해 조사 중 유명을 달리한 빅터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밝힌 이 눈부신 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듯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오늘 밝힌 등불이 유족에게는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빛이자 고인들에게는 온전한 회향을 이끄는 희망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유등제에서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관음종은 사회부장 현성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고국 봉환에 즉각 나설 것을 한일 정부에 촉구했다.

관음종은 “더 이상 민간의 희생과 눈물에만 무거운 짐을 방치할 수 없다. 84년의 긴 침묵을 깨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마음을 열고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합의한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전문 장비와 예산 지원 △희생자들의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관음종은 “낙산묘각사에 밝힌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관음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일면 스님 “생명 살리는 일엔 국경 없다”

생명나눔실천본부

2024년부터 해외구호 본격 나서
캄보디아 취약 지역에 50억원 물품
시엠립 사찰 연대 맞춤형 구호 전개
지원 넘어 불교적 생명공동체 구현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불교계 유일이자 국내 대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 단체다. “한 생명의 나눔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기치 아래 32년간 장기기증 캠페인과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백혈병·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 환자 의료비 후원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이 같은 경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구호 활동으로 확대됐다. 팬데믹을 거치며 의료격차와 생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는 취지로 국제구호 사업에 본격 나섰다. 그 중심에 캄보디아가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해외구호 첫해인 2024년, 20억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국제 자비행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부터는 현대불교신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자비나눔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체계적인 해외구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캄보디아 복지시설, 취약계층 마을을 직접 방문해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긴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에서 기증받은 각종 의료물품을 컨테이너 규모로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품목도 구체적이다.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환자용 침대와 의료소모품, 마스크와 위생용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 의료장비도 전달됐다. 현지 병원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의료기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한국에서 전달된 물품들은 곧바로 환자 치료에 사용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직접 캄보디아를 찾아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 가능 여부까지 점검하며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시엠립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접근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의료물품 지원뿐 아니라 생필품 나눔과 취약계층 돌봄 활동도 함께 펼쳤다.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빈곤 지역 아동들에게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했다. 질병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현지 사찰과의 연대 역시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자 교육과 복지, 정신적 의지처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찰을 선별, 협력하며 구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보편적인 해외 원조가 아니라 불교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제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구호 활동 규모는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약 50억원에 달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구호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면 스님은 “3년에 걸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진 파견 및 시설 보수 등 포괄적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하며 캄보디아 시엠립 일대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일면 스님이 3월 19일 리엄다이 초등학교에 방문,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전달하는 모습.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